

영암 F1 다시 시작이다

과제 - (상) 적자구조 탈피

예산증액·추가 확보 해야 할 광주·전남 주요사업

돈 안되는 흥행... 돈 먹는 하마 된다

팅빈 기업부스·광고판...마케팅 실패 경주장 사후 활용 등 수익 창출 절실

#1. 24일 오후 3시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 메인그랜드스탠드 기업부스(Sky BOX·스카이박스)는 한산했다. 연습주행과 예선전이 열린 이를 동안 10개 남짓한 부스는 청소 관계자들의 휴식 공간으로 전락했고 결승전이 열린 24일에도 기업들의 우아한 사교현장의 모습을 찾기는 힘들었다. 대회관계자와 일부 초청인사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된 게 고작이었다.

기업부스는 '패독(Paddock) 클럽'과 함께 'F1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테이블·소파·통신시설에 식사와 음료가 제공되는 호텔급 관람석이다. 세계 초일류 기업들의 경우 이 공간을 임대, 경주를 즐기며 글로벌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어 귀빈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경영장이다.

영암 서킷 패독 클럽 8개 부스도 비슷하다. 운영법인인 KAVO·FIA(국제자동차연맹), 글로벌스폰서인 LG전자·브리지스톤을 제외하면 사용한 기업들이 전무하다시피했다.

#2. 24대의 F1 '머신(machine)'이 굉음을 내며 엔진음을 내며 질주하던 서킷 양쪽으로 '발거벗은'가드레일과 안전펜스가 고스란히 들어왔다. 전 세계에서 F1 그랑프리가 열릴 때마다 TV에 노출됐던 유명 기업들의 광고판은 손으로 톺고 국내 기업들은 아예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찾았다든 것이다. 문제는 이들 모두가 유료 관람객은 아니라는 데 있다. 조직위원회는 홍보 부족과 낮은 대회 인지도를 우려해 2만여장의 공짜표를 나눠줬다. 50만원 이상인 메인그랜드스탠드 티켓은 인터넷에서 10만원도 안되는 '덤핑'으로 팔리는 경우도 많았다.

첫 행사라는 점에서 22개 시·군에 '할당'식으로 협조를 요청, 그나마 이정도도 체면을 세울 수 있었다는 말도 나온다. 1억 이상 티켓을 구입한 기업도 16곳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카이박스로 불리는 기업부스도 60여개를 설치, 약 89억원의 수익을 낸다는 예

F1 코리아 그랑프리 경우 자체 예상 수입 742억원 중 입장권 판매수입이 564억원으로 약 7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이번 대회 수입은 이에 턱없이 못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안이한 마케팅·홍보, 수술향아=F1 대회 운영법인인 카보가 예상하는 코리아 그랑프리 자체수입 742억원은 입장료 수입을 비롯 ▲스폰서 수입(58억원) ▲부스 판매(89억원) ▲의류·완구 등 기념품 판매 수입(3억원) ▲TV중계권(29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스폰서 수입은 미미하다. 서킷 주변 안전시설·펜스 등에 채워져야 할 스폰서 광고는 전무하다시피했다.

스카이박스로 불리는 기업부스도 60여개를 설치, 약 89억원의 수익을 낸다는 예

초 계획은 '장미빛 청사진'에 불과했다는 게 대회관계자들의 고백이다. 공개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타이틀스폰서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경주장 건설에만 4000억을 쏟아부었고 연간 운영비로 수백억을 토해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치열한 마케팅과 홍보를 통한 수익 구조 창출에 나서야 '돈 먹는 경주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안이한 마케팅·홍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향후 대회의 성공 개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주장 사후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



지난 22일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은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를 보려는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암 F1 대회 외국인 관람객 1만명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코리아 그랑프리를 위해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은 얼마나 될까.

26일 F1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관람한 외국인 관람객은 1만명에 이른다.

우선, 대회 관계자도 3000명의 외국인이 연습 주행이 이뤄진 22일 이전에 영암 경주장을 찾았고 대회 기간 중에도 세계 각국에서 F1 마니아 6000명이 전세기 등

으로 한국을 찾았다는 게 조직위 설명이다. 경주장 건설이 지연되면서 개최 여부를 놓고 불안감이 커지는데, 최종 검수마저 늦어지는 '악재'에 여행상품이 잇따라 취소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것.

조직위는 해외 여행객들의 경우 단체 여행 대신, 개별적으로 F1 티켓을 구매해 관람하는 것을 선호하는 만큼 실제 해외 관람객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정확한 집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광주·전남에서 8만명이 수용 가능한 3만8870석을 관람객들을 위해 마련했는데, 미리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했다가 속소를 구하지 못한 외국인들의 분의가 많았다"면서 "목포시내가 '글로벌 도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국인들로 북적였다"고 말했다.

광주, CT연구원·야구장 건립 전남, 연륙교·관광레저 도시

광주와 전남도는 2011년 추가 국비 확보가 절실한 핵심 현안을 각각 10건과 20건으로 압축했다.

전남도는 영암 F1,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예산 이외에도 18건을 더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서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 기본설계비 100억원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사업비(100억원)등도 예산이 확보돼야 현안사업 추진이 가능한 실정이다.

광주시의 경우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및 야구경기장 건립과 함께 ▲예교 폐기물 처리 및 전용보일러 설치(100억원) ▲광주교도소 진입도로(북부순환도로) 개설(300억원) ▲광주김치타운 운영(13억원) 등 8건을 현안에 추가했다.

이미 국비지원이 결정된 CGI센터 장비 구축(20억원),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지원(40억원) 등도 각각 10억과 30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생색내기' 예산 지원으로는 지역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만큼 지역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리다.

전남도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현황을 고려해 예산 확보를 위한 치밀한 전략과 대응 방안을 마련, 미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도는 특히 민선 5기 출범하면서 줄곧 강조했던 '첨단산업'과 '문화', '신재생에너지와 해양·관광산업 육성'이라는 전략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들 사

"예비비 1조원 편성 지방재정 지원"

서갑원 민주당 국회 예결위 간사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죽이기'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 서민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서갑원 의원(순천시)은 26일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예산 국회를 앞두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갈수록 서민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소외받고 있는 서민 복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과탄 지경에 이른 지방재정을 위해 1조원 정도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한, 세법 조정 등을 통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폭을 최소화,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광주·전남지역 내년도 국고 예산과 관련, "재정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취약하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목포~광양 고속도로 건설 등 정부안에서 삭감된 여수엑스포 SOC 사업 예산 등을 원상회복시키고 전남의 미래를 이끌 선도 사업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 예산과 관련, 서 의원은 "CT 연구원 설립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상풍거래소 유치 등도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만 땀뿜던 사랑한다는 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억지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몸과 마음에 건강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jinpharm.co.kr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비타민 A, C, E의 보급

- 육체피로, 임신 수유기 병중·병후의 체력 저하시, 노년기
- 눈의 건조감의 완화, 야맹증
- 햇빛·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기미, 주근깨)의 완화, 잇몸출혈·비출혈 예방
- 말초혈행장애 및 경년기시 다음 증상의 완화: 어거·목결림, 수직저림·수족냉증

이연의 보급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광고심의의뢰 : 1056-0600